

접수번호	청구제목
9629501	개자식들의 집합소 각급행정심판위원회관련, 정보공개담당자는 정독하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고 적용조문은 정보공개법제11조제5항제2호임.
9618221	대통령의 지시를 문건 선임행정관 황선엽과 출자들이 기관을 망치고 있는지도 모르는 전현희와 같은 자들이 존재하는 한,,비서실로 이송바랍니다.
9602721	해당 공사에서 직무상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소유 부동산 유류부지에 대한 정보에 대한 요청
9591360	검사는 허수아비고 검찰 7급은 왕이니,, MS, Lee가 돋보입니다.
9587165	해당기관 소유 부동산 유류부지에 대한 정보 요청
9581086	정당한 주장임을 인정하면 권익위로 이송, 부인하면 잘못을 지적하기 바랍니다. 법제11조제5항제2호에 근거함
9565577	순환골재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품질기준 확인에 대한 내역
9540578	기계설비법 대상 건축물 정보공개 요청
9536549	2022년도 신입사원 공개채용 필기점수 공개 요청
9517983	대통령이나 법무장관도 알 리가 없는 검찰과 법무조직의 현실 크게 2가지, 법제11조제5항제2호에 의한 청구입니다.
9509715	주장이 합리적인 경우 대통령비서실에 이송바라는 근거는 법제11조제5항제2호입니다.
9500356	2022년도 신입사원 공개채용 필기점수 공개 요청
9498723	순환토사 사용에 관한 자료
9490118	(2)송두환 방신 같은 놈아 특히 무식한 출자들 교육이라도 시키고 전결권을 주라는 말이다. 사무총장이라는 녀은 뭐하는 녀이나
9470604	(1)공직사회를 망친 자들과 망치고 있는 출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
9467707	환경관리팀, 자원재생(순환자원)관리부에 문의드립니다.
9461064	(6)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완산경찰의 죄인 만들기 시작되었는데,,온정훈 검사는 재조사를 지시해야
9453021	행안부장관 이상민 감사원장 최재해 국무총리 한덕수가 직무유기를 하지 않으려면 자체점검부터 하라.
9444917	이재명을 무료로 변호하였다는 송두환 진정 변호사라면 월급만 챙기지 말고,,무식한 출자들(특히 윤재완과 이수연)을 교육이라도 시킨 후
9433620	(11)윤석열 정부도 몽겔 건가 공직사회 99가 썩은 근본원인은 지방자치제 때문입니다.
9422701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유사사제 조사
9418578	전주시장당선자 우범기씨와 전북지사당선자 김관영씨, 공직사회 99가 썩은 근본 원인은 지방자치제 때문입니다.
9407394	춘천시에서는 출산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9410171	'성주행정발언이라며 고소하는 것은 저들 마음이지만, 전화를 끊은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인권위로 이송바랍니다.
9407395	춘천시에서는 출산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9404964	민원실 설치여부
9398945	해당 행사 참석 내역
9397802	가까운 최 말단우체국에 오프라인으로 이송 또는 의견제시 또는 공직을 월급버리자들의 집합소로 몽개는 이양재를 고소하시오. 법제11조제5항제2호적
9384737	415는 대법관들이 때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3.9는 0.73프로차임에도 이의를 제기한 놈이 전혀 없다는 것 등 시정이 확인되기전에는 투표하지 않기로
9375337	(6)윤석열 정부도 몽겔 건가 행안부장관 이상민을 아는 분들 누구라도 '이양재가 욕설을 하기 직전이라고 하더라'고 전해 주기를 부탁,,
9360197	(5)윤석열 정부도 몽겔 건가 대법관들이 단체로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깡소리로도 아니하는 월급버리자들을 상대로 자료를 수집하려는 청구임.
9346553	(4)윤석열 정부도 몽겔 건가 이재명에 비금가는 지방5급을 부하로 둔 인천서구청장 이재현은,,실력부족으로 더 이상,,어쨌건
9336647	(3)윤석열 정부도 몽겔 건가 구제불능인 경찰조직은 들어라(5) 경찰조직(해경포함)의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송해도 되고, 대부분의
9322011	(2)윤석열 정부도 몽겔 건가 이윤숙 무식한 녀아(행안부 정보공개정책과장) 해당 민원은 황원식이라는 놈은 모르는 내용이고,,박선숙씨가 담당해야
9240060	윤석열 정부도 몽겔 건가, 원문 3매는 네이버블로그 id hj3388에 있음
9282266	1. Lee yang jae is No 1 customer at KOREA POST. 2. 전북우정청장 임정규 국장 이경우는 직무유기로, 아니면 행정지원과
9247899	석면해체제거용역 발주계획을 정보공개 요청 합니다.
9243996	검찰3급과 지방사설7급을 맞바꿔도 손해나는 자는 없고 이익은 계산이 불가능하다.
9226371	(1)말하기 싫은 진실, 전국에서 가장 썩은 기초단체 전주시, 시장 김승수와 임명직 완산구청장 김병수
9209456	우편물만 다루면서, 최소한의 원칙도 모르는 손승현과 노기섭은 월급만,,본 문과 관련문건'을 피청구인기관이 위치한 면 동단위 우체국에 이송바
9201369	모든 피청구인은 본 청구 건물,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면 현행법위반이 아니냐고 기재하여 대응하는 선관위에 이송하기 바랍니다.
9193228	대검찰청이 이런 수준이니,,김오수, 검사완박만 문제로 알지
9179795	기록관리 업무 관련 정보공개 청구
9177896	전주시장 김승수 감사담당관 박규규는 정계위 완산구청장 김병수 보건소장 김신선 총무과장 조미정은 자필사과문제시와 별도로 해결책을
9171553	정보공개법제11조제5항제2호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내키는 대로 이송해도 됩니다.
9154002	단장전화를 받은 녀이 약속을,,지가 결재해야 5급에게 '전화 왔다'는 말도,,감사실김정민이는 말기도 알아듣지,,옳으면 같은 지역(동 단위) 이송바
9135938	언론사 주최 행사에 대한 참여 내역
9120603	이양재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박은 물론 욕설을 해도 좋고, 하면 행정안전부와 전주시 완산구에 이송바랍니다.
9114785	구제불능의 경찰조직은 들어라(4) 상하급자들 통틀어,,경찰청에 이송하시오.
9070744	주장이 틀렸으면 정보공개법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견을,,이양재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시정해야할 사안이라는 판단이면 행안부로 이송하시오.
9059911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현황 조사
9058663	명색 검찰이 사건을 이렇게 다루는 수준이니,, 이양재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하면 전주지검과 전주완산서로 이송하시오
9049728	경찰조직은 들어라(3) 한심한 놈들이 번번이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나의 주장에 할 말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경찰청에 이송하라.
9032685	경찰조직은 들어라(2) 곧 애를 보러갈 월급버리자 김창홍은 총경이 이러한 수준이라는 것은 알고 가라.
9016239	모든 피청구인은 대구에 있는 광역시와 지자체(중구청 제외)에 이송하시오.
9000823	경찰조직 들어라. 명색 총경이 공직자의 기본도 안 되어 있는 네 놈들 조직은 적폐청산대상이다. 직전 글(고발)을 멋대로 이송한 기관명단을,,
8990173	전주시검찰 외는 대응하는 선관위에 이송하시오.
8972978	대응하는 선관위와 사법부에 이송바랍니다.
8972680	대응하는 선관위와 사법부에 이송바랍니다.
8953636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용기를 사전투표는 하지,, 사전이건 당일이건 私印이 찍혀 있지 않은 투
8950370	모든 피청구인은, 선관위의 모범 즉 '공직선거법을 자신들이 몽개는 이유는 뭐냐'고 대응선관위에 이송할 것, 경고 대구중구 행정국장 권영학
8936597	모든 피청구인은 본 청구 건물,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면 현행법위반이 아니냐고 기재하여 대응하는 선관위에 이송하기 바랍니다.
8932389	공직선거법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2항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
8928468	22년 2월 기준 수의계약 가능 용지 리스트 공개 요청
8914434	(2)한심한 공직자들이 단 1건만으로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얼마나 썩었는지 봐라.맨 글 이제 공개필수
8888066	한심한 공직자들이 단 1건만으로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얼마나 썩었는지 봐라.
8878486	확인
8877115	토지보상법에 의한 판매권발생통지내용
8847695	이재명 마누라건 신부름을시킨, 언론에 보도되고있는 배모씨 관련
8842597	가야를 구해 주십시오 (합천을 임나일본부 다라국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를 반대합니다)
8828569	원칙이 중요한 이유
8824076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와 보건복지부 권덕철 그리고 김부겸
8820521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도로보조기충용 사용 현황
8812388	김경재씨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이유
8801293	김부겸 전해철 김우호 노형욱 조성욱 한심한 년 놈들이 네 년 놈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은 없지
8799962	김부겸 전해철 김우호 노형욱 조성욱 한심한 년 놈들이 네 년 놈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은 없지
8798721	김부겸 전해철 김우호 노형욱 조성욱 한심한 년 놈들이 네 년 놈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은 없지
8797323	김부겸 전해철 김우호 노형욱 조성욱 한심한 년 놈들이 네 년 놈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은 없지
8789989	총리실 감사원 권익위 국토부 다음으로 한심한 보건복지부
8780617	(5) 경험으로 알고 있는, 당장 없애는 것이 애국인 각급 행정심판위원회 소속 월급버리자들. 김부겸 네 까지 놈이 총리냐
8769230	(4) 전현희와 김기표 월급버리자들이 출자(4급 2, 6급 1)들이 250원짜리인 줄은 몰랐지 김부겸 네 놈이 총리

8763223	2022년 공공기관 민간위탁 운영현황 정보공개 요청을 드리며
8757744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8738076	다른 후보는 꿈에서도,, 박정희대통령시절 16년간이나 망명하였음에도 존경, 대통령의 특사로 김정일을 만난 후 '돈은 주지 말라'고 건의한,, 평당하고
8732210	(3) 전현희 3중에 수 천 개의 증거가 있다고 해도, 전걸자 마음대로 유권해석을 하면,, 그게 나라 김부겸과 같이 무능한 놈이 국무총리이니,, 어하 간에
8722435	개봉하지 않은 등기우편물 3통,,또 보낼 고양지청 902호 검사는 국고도 아끼고 상식도 기르시오. 나는 평생 진정해 본 적이 없는 사람ियो.
8711418	2021년도 장애인 고용현황 및 2022년 계획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8710416	2021년도 장애인 고용현황 및 2022년 계획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8702796	(2)국토부장관 노형욱, 1차관 윤성원, 주택토지실장 김수상, 주택정책관 김영한, 주택건설공급과장 김경현 개자식들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한
8693739	(2)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중앙행정심판위원장 김기표 년 놈들이 월급버리지가 아니라면 답변,,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정도로 무능하면 애를 보러
8683318	언론사 주최 ESG 관련 행사·모임 등에 대한 참여 내역
8681584	화장장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현황 공개 청구
8671440	월급버리자들이 눈을 뜨고 결재해라.
8663393	춘천시청 세무과 에서 2017년도 취득했던...
8650279	경찰과 여러분이나 비슷한 것은 피자 정보공개담당자라서일 겁니다.
8647265	기관 내 감사부서 문서 열람권한 현황
8638670	확인
8632672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중앙행정심판위원장 김기표 년 놈들이 월급버리지가 아니라면 답변해 바라. 이렇게 단순한 문제도 해결 못할 정도로 무능
8622293	이완용이보다 더 역적같은 년 민성심 국여도 모르는 것들이 유권해석 낚신 짓이나 하는 년 먹여 살리는,, 그런 것을 확인시켜 준 우정사업본부 고위
8609712	노형욱 네가짓 게 장관 김부겸 도토리와 키 재기를 해봐라. 월급버리지노릇하다 가면 되는 김경현이라는 놈이 휘두른 칼에 전국의 아파트주민들의
8579971	공직사회부패지수를 1올려 96가 된 것은 경교육청감사관실 6 손지원 덕이다
8571048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직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력과 용기입니다. No 32. 2021.12.10. No 2. 멸망의 길에 접어들어 대한민국
8563590	제목 '멸망의 길에 접어들어 대한민국'이라면 너무 나갔다고
8545352	소명의식은커녕 무식 명칭 한심 답답 우매 불례만도 못한 등 모든 비하표현을 동원해도 부족한 월급버리자들이 국무총리에게 욕을 해도 듣고 있는 너
8542277	출장비 내역 청구
8537476	최근 5년간 공공기관(사업주체)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아파트) 분양가상한제 가격 공개 요청
8533315	최근 5년간 입사자 현황 정보공개 요청
8524265	춘천시 도시공사운영 신복읍체육공원 운영 예산세부집행내용 요청건
8513978	김부겸 네 놈과 같이 무식하고 무능한 놈이 국무총리 네 놈이 임명하였을 구윤철이나 오영식이 월급버리자들이기에, 토박이 고관규나 27일 낮
8487192	28. 2021.11.22. 13. 불치병자들의 놀이터 공직사회
8473740	감투를 나눠주는 대통령 법을 만드는 대법관 월급버리자기관장에 전걸자와 검토자는 무조건 서명하 대한민국은 기관자들의 판단에 달렸다
8466716	관리공단 환경시설부에 문의드립니다.
8462052	주도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선관위, 엄수가 아니라 법을 만드는 대법관, 요소수 사태 또 온다. 김부겸 오영식과 구윤철 장관과 기관장들이 뭐
8452348	춘천시도시공사에서 운영중인 신복읍체육공원 운영 예산 요청건
8444998	언론사 주최 ESG 관련 행사·모임에 대한 참가·가입·협찬 내역
8430945	김부겸씨, 당신이 한번만 확인했어도,,내려오는 것이 애국입니다. 불임은 오영식과 구윤철이 15번이나 받은 문건입니다.
8403922	고위공무원과 대법관 년 놈들이. 자부심은커녕 부끄러움도 모르는 것들이 인간이나
8383167	춘천 송암스포츠 타운 내 X게임장 (X게임용 시설물 도면 및 시방서 요청의 건)
8378238	청구 외 통지는 무식한 탓 광역과 기초는 공동주택담당부서와 감사원 국토부 거명된 기관에, 무관한 기관은 감사원 국토부 거명된 기관에 이송하시오
8364169	공공기관 업무용 휴대폰 사용현황 조사
8348034	경험이 가장 많고 용기가 있는 후보가 국민혁명당에서 나왔다. 공직 중에서도 가장 단순한 일만 하면서도 단체로 무능하고 무식한 우정사업본부.
8328573	부정선거가 확인되었음에도 양심선언하는 자가 단 한 놈도 없는 선관위와 사법부, 빙신 같은 일만 골라서 하는 국토부
8308617	(5)(부정여부도 판단 못하는 놈들, 불의에 눈을 감는 놈들이 대통령후보 대법관을 탄핵하라.) 불치병자들의 놀이터 공직사회
8279229	(4)(불의에 눈을 감는 자들이 대통령후보 대법관들을 탄핵하여야 한다) 불치병자들의 놀이터 공직사회(역적이 되기 전에 떠나라.)
8267689	이러한 공무원이 토착왜구가 아니라는 정보를 청구합니다.
8259976	(3)불치병자들의 놀이터 공직사회(역적이 되기 전에 공직을 떠나라.)
8250882	김부겸국무총리는바보입니까.(국무총리실은 답하시오)
8250231	김부겸국무총리는바보입니까.(국무총리실은 답하시오)
8233364	창씨개명을 사주한 문화재청을 칭찬합니다.
8220310	창씨개명 부활, 문화재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8201746	대통령권한대행이던 황교안씨의 face book에서, 그리고 공병호티비에서 원고측변호사 도태우씨의 주장을 옮겼는데,,
8192653	역대 사장 또는 이사장 관련 정보 요청
8185785	2021년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운영현황 정보공개 요청을 드리며
8178957	이완용보다 더 저질인 조재연양산을(8.23.) 영등포울(8.30.) 재검표 주심 덕에 미군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은 아프간과 같이
8170045	남원을 구해 주십시오
8159317	(1)불치병자들의 놀이터 공직사회(역적이 되기 전에 공직을 떠나라.)
8120786	천대엽과 김선수 그리고 중앙선관위 때문에 골병이 들어 있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타기관이송'운동에 동참하는 기관은 보답하겠습니다.
8120786	천대엽과 김선수 그리고 중앙선관위 때문에 골병이 들어 있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타기관이송'운동에 동참하는 기관은 보답하겠습니다.
8114500	가야를 구해 주십시오